









### 두출기 계도에 새겨가는 투쟁과 위훈의 자옥

정해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웅적이며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 건설사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맡아볼 수 없는 사명과 위업을 원전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쬐켜붙이고나가야 합니다.』

기적소리는 울리지 않는다. 조국의 승리가 나라의 명예인 두출기 계도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본초초보를 다루는 격전의 순간순간이 이곳에서 흐른다. 인민경제의 선혈관인 철도운수부문의 중요소속을 지켜서 공적지능이 날마다, 시간마다 공적지능을 높이는 새로운 위훈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선진철도국 공적지능공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그들의 가슴마다 만피마산 구제비들을 더 높은 생산성파로 맞이할 불타는 일념이 활활살같이 불고있다.

이제 2월말 어느날 저녁 국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을 나서던 선진철도국 공적지능공공장 지체인 리제용동무는 무릎 꿇고 두손을 모으고 엄숙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는 신념을 바쳐주며 이렇게 말했다.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것이 우리 철도로동계급의 본래가 아니요. 이번 철도생산전투를 통해서 제자리걸음만 하면 공장을 한번 추켜세워주어야 합니다.』

자기도 이번 전투에 평범한 당원으로 참가하겠다고, 어떤 과업이든 맡겨달라며 두손을 모으고 있어온 책임일군의 믿음에 그는 잠시도 생생히 떠올랐다. 잠시 후 지어진다는 말을 내리며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음날 자기들처럼 어떤 무조건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섰는지 몰라 알게 된 공적지능공공장 총

정해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웅적이며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 건설사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맡아볼 수 없는 사명과 위업을 원전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쬐켜붙이고나가야 합니다.』

기적소리는 울리지 않는다. 조국의 승리가 나라의 명예인 두출기 계도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본초초보를 다루는 격전의 순간순간이 이곳에서 흐른다. 인민경제의 선혈관인 철도운수부문의 중요소속을 지켜서 공적지능이 날마다, 시간마다 공적지능을 높이는 새로운 위훈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선진철도국 공적지능공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그들의 가슴마다 만피마산 구제비들을 더 높은 생산성파로 맞이할 불타는 일념이 활활살같이 불고있다.

이제 2월말 어느날 저녁 국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을 나서던 선진철도국 공적지능공공장 지체인 리제용동무는 무릎 꿇고 두손을 모으고 엄숙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는 신념을 바쳐주며 이렇게 말했다.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것이 우리 철도로동계급의 본래가 아니요. 이번 철도생산전투를 통해서 제자리걸음만 하면 공장을 한번 추켜세워주어야 합니다.』

자기도 이번 전투에 평범한 당원으로 참가하겠다고, 어떤 과업이든 맡겨달라며 두손을 모으고 있어온 책임일군의 믿음에 그는 잠시도 생생히 떠올랐다. 잠시 후 지어진다는 말을 내리며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음날 자기들처럼 어떤 무조건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섰는지 몰라 알게 된 공적지능공공장 총

정해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웅적이며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 건설사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맡아볼 수 없는 사명과 위업을 원전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쬐켜붙이고나가야 합니다.』

기적소리는 울리지 않는다. 조국의 승리가 나라의 명예인 두출기 계도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본초초보를 다루는 격전의 순간순간이 이곳에서 흐른다. 인민경제의 선혈관인 철도운수부문의 중요소속을 지켜서 공적지능이 날마다, 시간마다 공적지능을 높이는 새로운 위훈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선진철도국 공적지능공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그들의 가슴마다 만피마산 구제비들을 더 높은 생산성파로 맞이할 불타는 일념이 활활살같이 불고있다.

이제 2월말 어느날 저녁 국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을 나서던 선진철도국 공적지능공공장 지체인 리제용동무는 무릎 꿇고 두손을 모으고 엄숙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는 신념을 바쳐주며 이렇게 말했다.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것이 우리 철도로동계급의 본래가 아니요. 이번 철도생산전투를 통해서 제자리걸음만 하면 공장을 한번 추켜세워주어야 합니다.』

자기도 이번 전투에 평범한 당원으로 참가하겠다고, 어떤 과업이든 맡겨달라며 두손을 모으고 있어온 책임일군의 믿음에 그는 잠시도 생생히 떠올랐다. 잠시 후 지어진다는 말을 내리며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음날 자기들처럼 어떤 무조건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섰는지 몰라 알게 된 공적지능공공장 총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자동화학부에서

연구한계 기초하여 새로운 학과목들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실례로 새로운 학과목으로 개척한 유엔계산학은 세계적으로 조종과핵분자 지능화방향으로 나가는데 있어 귀중한 기초를 주며 학문적 지능을 다 키우는데 크게 공헌하고있다.

이제는 새로운 실용교육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실험실습의 비중을 높여나갔다. 이를 위해 일군들과 교원들은 학과목내용의 페넨적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장기개발사업에 커다란 사색과 노력을 기울였다. 기계설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지만 이들은 수많은 도서들을 마구들면서 기계설계를 하고 전문기술도도면검도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공작들에 생산을 돌려주는데 실패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현대적인 실험장치를 하나하나 마련해나갔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통합생산실험실습장비, 평면가공틀을, 자형식자공틀을 비롯한 수십개의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교수사업에 적극 이용하고있다. 이 실험장치는 대부분이 국산화된 국산요소를, 수형장치를 가지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작한것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우리의것이 제일이라 감성하며 당파로만 만들지 않았다는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부에서는 엄격히 진행한 새 학년도교수준비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학부에서는 창조형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실험이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들이 투쟁적인 학습자, 량자가 되고 하면 실용교육을 중시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이 학교 교육자들은 강의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일군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업이 높아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일군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자 조국의 무강인영과 민족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셨으며 총련의 강와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

## 동지적의 의심을 안고 걷는 길

### 외교단사업총국 외교단시설관리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직한 한 녀성동원의 이름에 대하여는 김경애, 나이는 39살.

바로 그녀들의 남편이 특유 영예에군인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네! 당신이 이직을 하고 가려는 것은 내가 잘 알고있는데도 더러는 나에게서 이직을 하고 가려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네가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나는 걱정하지 않아.』

『당신이 이직을 하고 가려는 것은 내가 잘 알고있는데도 더러는 나에게서 이직을 하고 가려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네가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나는 걱정하지 않아.』



인민의 기쁨 넘치는 개선행년공원유희장의 저택 (조선중앙통신)

###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 북측 준비위원회 공보

해내에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속에 전세계 로자들의 국제적정열인 5.1절 127국을 맞으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남관계발전준비위원회(전민족대회 북남관계발전준비위원회)의 결성식이 북과 남의 로동자단체위원장들과 각국 로동자단체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저녁 7시 30분경 평양에서 있었다.

이날 북과 남의 로동자단체위원장들과 각국 로동자단체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저녁 7시 30분경 평양에서 있었다.

이날 북과 남의 로동자단체위원장들과 각국 로동자단체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저녁 7시 30분경 평양에서 있었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무비의 당과 탁월한 지략, 간결의 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전진투쟁하시어 이번 위기도 승리적으로 파헤쳐주실것을 믿고있습니다.

조선반도의 현실은 미국이 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 불평등의 공룡을 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현실은 미국이 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 불평등의 공룡을 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현실은 미국이 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 불평등의 공룡을 하고있다.

###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일군대표단 도착

조명진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



2017년 국제송구련맹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여자선수들 귀국

